

광주시, 허술한 국비 확보 활동 '도마'

같은 사업 3개 중복 신청에 증설·이설 예산 '오락가락' 유사 용역 중 사업 중복까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신청

광주시의 주먹구구식 국비 확보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확보 과정에서 같은 사업을 무더기로 중복 요청하거나 사업 내용을 갑자기 바꾸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 국비 확보 과정에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공모에 각각 다른 3곳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애초 남구 도시첨단국가산단에 광주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신규)를 위해 364억원(국비 160억원·시비 204억원)을 요청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마쳤다. 비용 편익분석 결과도 1.459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이에 중기부에 건립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국회에 추가로 10억원의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들연 2개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신규사업으로 북구 오룡동에 301억원(국비 160억원·시비 141억원)을 들여 AI융복합

지구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고 10억원의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장애인기업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 5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센터를 건립해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전국 36곳의 지식산업센터를 선정했고, 광주는 현재 동구와 북구에 각 1곳씩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같은 사업에 대해 행정력을 3곳으로 나눠 국비를 요청하면서 정작 중요한 서류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용역이 마무리돼 예산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광주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국회에 보고된 기재부의 검토보고서에는 이미 완공된 도시첨단국가산단에 대해 '해당 부지인 도시첨단국가산단이 2023년 준공 예정'이라고 표기돼 있어 최근 뒤늦게 이를 바로잡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적게는 3곳, 많게는 7곳의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선정하는데, 광주시가 한 해에 3곳을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국비 확보 활동"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한 '새로 짓는 것'과 ' 옮겨 짓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애초 광주시는 342억원(국비 171억

원·지방비 171억원)을 들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을 '증설'하겠다고 설계비 4억5000만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부지가 비좁아 다른 곳으로 '이설'하겠다고 예산 내용을 변경했다.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요청한 예산도 발목이 잡혔다. 광주시는 1조원 가량으로 예측되는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을 위해 내년에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신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전남도에 조강래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증액돼 인근 지역인 광주에 국가고자기장연구소를 구축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또 "광주시가 내년 예산에 요청한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은 앞서 강원, 울산 광주가 진행하고 있는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기획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며 부정적이다.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기획연구 용역은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며, 과기부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내후년 예산에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를 따지자는 입장이다. 그나마 이 예산은 최근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반영될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소년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주세요"

광주시·전남도 4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시행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대급 확산세와 새로운 변이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이미 유럽에서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인근 일본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오는 등 국내 유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및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일상 회

복 1단계를 유지하면서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해 지역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11월에만 52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들어 29일까지 전체 누적 확진자(6285명)의 14.4%인 909명이 확진됐다. 특히 지난 30일 오후 5시 현재까지 18명이 추가돼 927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날 밤 12시 기준 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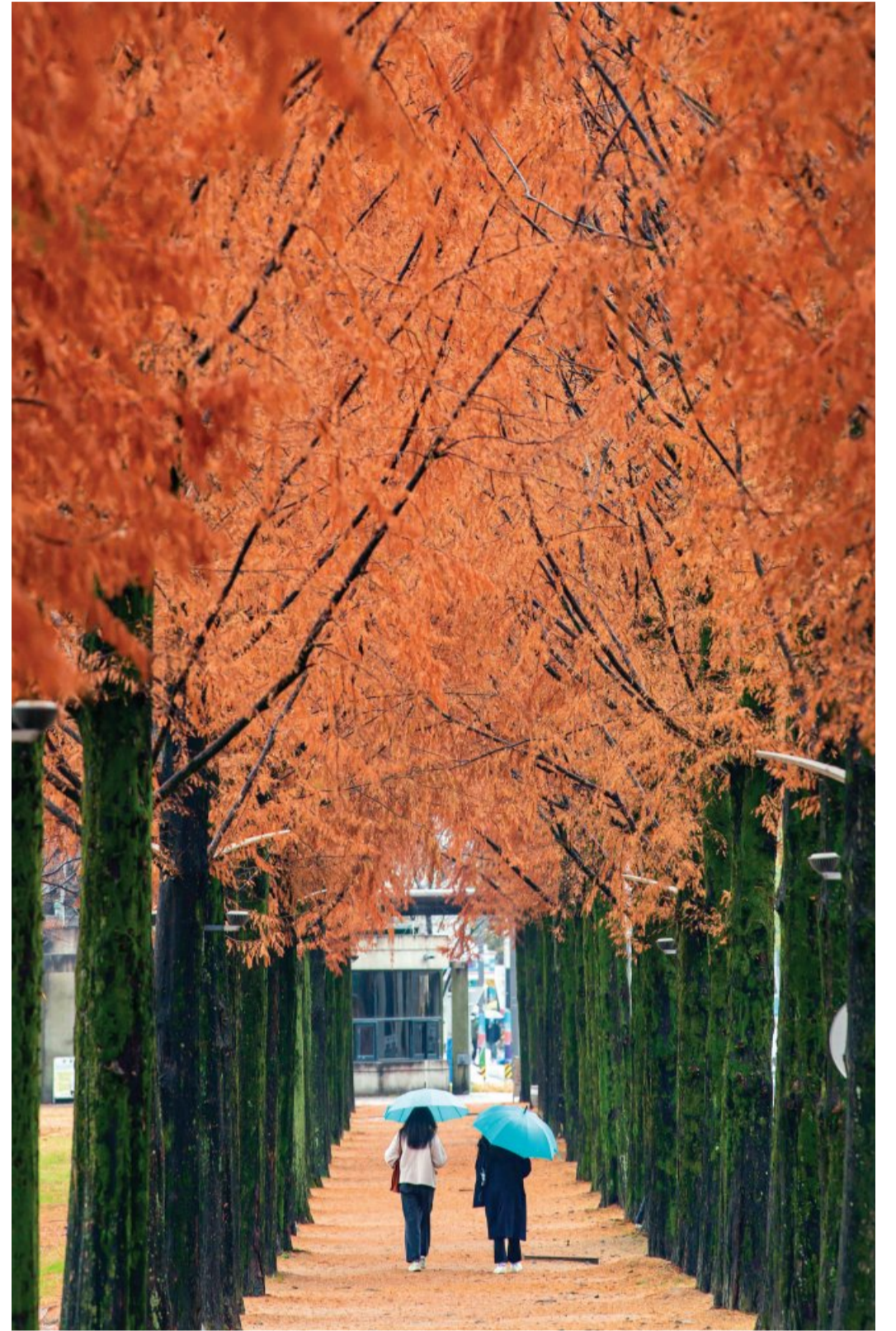
월간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9월(927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감염 취약계층인 10대 이하,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접종률은 낮으면서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 어린이 확진자가 272명으로 30%에 달했다.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면역 효과도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486명(53.4%)이나 됐다.

전남도도 이날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은 면역확보를 위한 '신속한 백신 접종'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추가접종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만 18-49세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도 들어간다. 만 18-49세는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 12월 4일부터 추가접종을 진행한다. 만 12-17세 청소년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접종을 제고를 위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접종 완료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하고 방역패스를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 병상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겨울비 내려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린 30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줄지어 선 메타세콰이아 나무 아래로 우산을 쓴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미크론 공포'...코스피 70P 폭락 연중 최저

코스피가 지난 30일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2840 아래로 내려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0.31포인트(2.42%) 내린 2839.01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직전 최저치인 지난달 6일의 2908.31보다 낮은 연중 최저점이자 작년 12월 29일(2820.5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중 한때 2822.73까지 밀리며

장중 연저점도 새로 썼다. 종전 연저점은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 기록한 2869.11이다.

이날 급락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 세계 확산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정기 변경도 수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6.71포인트(2.69%) 내린 965.63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오래된 아파트, 소방차 주차할 곳 없다	▶6면
시 페퍼스 시티 이현 '믿음의 토스'	▶18면
'한국의 발자크' 소설가 이병주	▶22면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제조업의 심장 광양만권 산업단지,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대개조하겠습니다.

전남도,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추진

- 공간범위 : (거점)여수국가산단, (연계)광양국가산단, 울진제철산단, 여수·광양항
- 공모사업 : 추진사업('21년 우선 추진), 28개 사업, 9,315억원(국비 2,809, 지방비 1,676, 민자 4,830) / 제안사업('24년까지 연차별 추진), 43개 사업, 1조 2,018억원
- 주요사업 :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 공단범위 : (거점)여수국가산단, (연계)광양국가산단, 울진제철산단, 여수·광양항

• 공모사업 : 추진사업('21년 우선 추진), 28개 사업, 9,315억원(국비 2,809, 지방비 1,676, 민자 4,830) / 제안사업('24년까지 연차별 추진), 43개 사업, 1조 2,018억원

• 주요사업 :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